

#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도 책임져”

## 금감원, 책임 유무·보상 방안 법률 검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진다.

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이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데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다.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카드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자율적인 보상 움직임이 없는 데다 몇몇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에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한 만큼 은행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맞선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 1항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나 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으면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2항을 보면 사기범 등 제삼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넘긴 것은 ‘중과실’에 해당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관련 법과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단국대 법학과 정준현 교수는 “민법이 선언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소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도 자신이 사기범에 속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애초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면책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객정보 유출에서 비롯했다”며 “근본적 책임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우보다 비싼 갈치. 대형마트 생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갈치 가격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기야 한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마트는 마리(300g)당 9800원으로 3년 전보다 26%가량 올랐다. 롯데마트도 4500원으로 80% 가까이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 휘발유 값 8주째 하락

광주 ㄹ 당 1925원...올 하반기 최저

전남 1955원...9월 이후 63원 하락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값이 8주째 하락하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ㄹ 당 1925원.83원으로 올 하반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최고가였던 지난 9월16일 2006.71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80.88원이나 떨어졌다. 특히 지난 9월21일(1979.83원) 이후 21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남은 이날 현재 휘발유 가격이 ㄹ 당 1955.60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17일 2018.80원으로 하반기 이후 최고가를 보였던 휘발유 값이 63.20원이나 하락한 것이다.

올해 유가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변동폭이 컸다.

광주지역 휘발유 값은 새해 첫날 1893.42원으로 시작한 뒤 오름세를 보이다가 4월18일 2049.72원으로 올 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그 후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리다가

7월15일에는 연중 최저치인 1862.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9월16일 2006.71원으로 두번째 꼭짓점에 다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852.18원까지 치솟았던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달 13일 1799.61원으로 1800원대가 무너진 뒤 이날 현재 1749.93원을 기록하고 있다.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통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수입가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석유제품가격이 지난달 내내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국내 가격도 내림세를 계속할 것으로 오피넷은 전망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9월 지역 금융권 대출·예금 급증

추석 자금 인출·농산물 출하대금 유입 늘어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대출과 예금이 전달에 비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신은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4004 → +9684억원)됐다.

예금은행은 추석 상여금 지급을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법인고 지사채

등이 자금을 인출하면서 증가폭이 축소(+3354 → +2799억원)됐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금융(농·수·축협)에 농산물 출하대금이 유입되면서 수신 자금이 늘어나 증가폭이 크게 확대(+651 → +6884억원)됐다.

금융기관 여신도 증가폭이 확대(+3433 → +5053억원)됐다.

예금은행은 가계대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2686 → +4765억원)됐다.

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은 추석자금 수요 및 9월말 추석 휴일로 대출 상황이 10월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이 감소로 돌아섬에 따라 증가폭이 축소(+747 → +287억원)됐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 고객만족도 1위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1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I)'에서 항공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내 첨단시설과 인건공화한사랑라온지, 해피택 서비스 등 차별화 서비스가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CSI는 산업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992년에 개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0월 전세자금 1조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1조607억원(3만 2541건)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18.9%, 올해 9월보다 21.3% 늘어난 액수다.

/연합뉴스

## 부자들 “투자 보다 관망”

### 불황·정권교체에 불확실성 증폭...현금 선호

“부자들은 투자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있다”

고객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들은 11일 최근의 투자동향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문제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중국, 한국 등의 대통령 선거와 지도부 교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금을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금과 함께 즉시 현금 등 결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공격적 투자보다는 가진 돈이라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보수적인 심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자들은 경기 불황과 정권교체

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험 자산 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 김도현 차장은 “30억원 이상을 맡긴 15명의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6~7명이 전체 자산의 40% 정도를 현금이나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현금성 자산에는 수시 인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 머니마켓펀드(MMW)와 만기 3개월 미만의 채권이나 신탁상품 등이 포함된다.

삼성증권 UHNW사업부 강남과 이앤스센터 조인호 부장은 부자들의 투자 동향을 ‘관망세’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부자들이 투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각종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경기 약화에 따라 몇 년 전 연수입 퍼센트의 고수익을 안겨 주던 펀드 상품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 버렸다. 그러자 부자들은 투자에 몸을 사리면서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절세를 내세운 연금보험 등이 최근 부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고 부자 증세에 대한 부담감도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기저축보험의 일종인 ‘즉시연금’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였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고객 자산가가 절세수단으로 활용해온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연말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축제에서 길을 찾다”

#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

| 일시 | 2012. 11. 13(화) ~ 11. 14(수) (양일간)

| 장소 | 광주 라마다호텔 5층 회의실 및 대외회장

### ■ 11월 13일 : 성공하는 지역축제 세미나

#### ● 주제발표

송태갑(전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 : 융합의 시대 - 미래 지역축제의 역할

나경수(전남대학교 교수) :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미래형 축제 모델

#### ● 종합토론

좌 장 : 이진철(전남발전연구원 원장)

토론위원 : 이승욱(전라남도 관광정책과 관광축제담당)

송진희(호남대학교 교수)

염방렬(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장)

박진현(광주일보 편집부국장)

### ■ 11월 14일 : 성공한 지역축제 사례발표

#### ● 사례발표

유경숙(세계축제연구소장) : 성공한 세계의 지역축제 사례 분석

#### ● 자치단체 우수축제 사례발표 및 평가

평가위원 : 기현호(광주일보 편집부국장)

송태현(전라남도 관광정책과 관광축제담당)

박창규(전남도립대학 교수)

염방렬(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장)

송태갑(전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

송진희(호남대학교 교수)

|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